

스마트제조 혁신 고급인력 양성 추진

전북산학융합원 등, 군산국가산단에 고급인력 양성 거점 구축키로... 2년간 1300명 재직자·교육학부생 등 양성 '맞춘'

거점산단인 군산국가산단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 사업을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수행하게 돼 8월 산단공 전북본부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 행사에는 도·시군, 산단공단 전북본부, 주관기관인 전북산학융합원과 참여기관인 전북대, 군산대학교 신학협력단,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전북본부에서 참석하여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의 출발을 축하하며, 성공적 인착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다.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산단을 디지털·그린이 융합된 미래형 혁신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통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스마트 전환과 스마트제조 공정 운영을 위해 군산국가산단에 고급인력 양성 거점을 구축한다.

기존 내연기관 중심에서 탈피, 자동차와 기계 등 주력산업을 미래형 모빌리티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해 스마트 제조공정 도입과 전문 인력양성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지정됨에 따라



거점산단인 군산국가산단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선정됨에 따라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을 전북산학융합원에서 수행하게 돼 8월 산단공 전북본부와 공식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도청 제공)

산업전환으로 스마트제조에 대한 재직자, 구직자, 재학생 등에게 교육체계를 확립하고 스마트 제조공정에 부응할 수 있는 직무교육으로 스마트제조 혁신과 군산국가산단 변혁의 기반이 마련됐다.

스마트제조 고급인력양성 사업은 미래형 모빌리티 스마트 Lab, 스마트 제조 요소기술 Lab 등의 구축과 산·학·민·관의 융합 프로젝트인 Cell-On(Cell-Open Network) 프로그램으로 160명의 현장 맞춤형 스마트제조·공

정 인력 양성을 참여기관과 지역특화 사업으로 공동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년동안 총사업비 9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스마트제조 및 설계 관련 교육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도 스마트제조 재직자 역량 강화 사업으로 1,200명의 스마트제조 교육인원과 1,000명의 교육수로 목표 달성 및 스마트화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또한 군산산단의 주요산업 분야(자동차, 기계)를 고려하여 특화교육과

정 개발과 스마트공장 전문인력이 제조기업에 채용되어 운영될 수 있는 전 주기 단계별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되어 큰 의미가 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스마트제조 고급인력 양성사업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산학간 협력체계 강화로 군산국가산단이 청년들의 희망을 키우는 공간으로 탈바꿈돼 일자리 창출 도모와 도의 혁신성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지원

시설개선자금 대출 금리 연1%... 식품제조·가공업 2억2천 식품접객업 7천·모범 및 향토음식점 1억2천만원까지 지원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식업소 경영에 도움을 주고, 안전한 식품 제공 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용자사업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용자 지원사업은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용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은 최대 2억2,000만원, 식품접객업은 7,000만원이며, 모범음식점 및 향토음식점은 1억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용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위탁운영집단지급소를 운영하는 자이며,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치(HACCP 시설), 영업장 및

화장실 시설개선에 한해 지원하게 된다.

다만, 영업허가(신고 등록) 6개월 미만이거나 휴·폐업, 용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퇴·변태 영업행위로 행정처분 받거나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이미 용자받은 업소로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는 제외된다.

용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식품진흥기금용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하면 되며, 용자조건은 2년 거치 4년 균등 분할상환이다.

용자 신청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 건강증진과(☎063-280-4673) 또는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수 기자



무주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위한 직원 교육 실시

국가예산 1차 관문 통과해 예산확보 '청신호' ... 직원 250명 대상, 설립 필요성·당위성 교육 진행

무주군이 민선 8기를 앞두고 세계 태권도인의 꿈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행정력을 모은다.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편성되면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군은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전통생활문화체험관에서 무주군 공직자 25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에 관련한 직원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전 직원이 원 보이스(cre-voice) 전략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 숙지하고 정에 홍보 요원하게 직원들이 출신수범, 무주에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다.

8일 강사로 나선 문현중 행정복지국장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가 설립될 경우 한류의 원조라 할 수 있는



태권도를 통해 전 세계로 한류·문화영토를 확장함으로써 국익과 국가 경쟁력이 확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국장은 "전 세계적인 무한경쟁 시대에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통한 한류문화 확산으로 경제와 통상으로도 이어지게 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이어 "제20대 대선 공약 채택에 이어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 채택, 그리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이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편성되면서 기획재정부로 제출된 만큼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이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다"라며 "전 공직자들도 당위성에 대한 홍보

와 예산편성 과정에 신경을 기울여 달라"라고 강조했다.

황인홍 군수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은 우리나라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수 천 년 이어갈 국가적 대사이며 무주군의 지역소멸문제 극복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백년대계의 기반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에 입학생을 모집해 글로벌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원대학 형태로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북지역 7대 공약으로 반영하여 발표한 바 있다.

군은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관학교 설립지지 100만인 서명운동을 비롯해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와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정치권과 태권도 업계의 지원에 큰 힘을 얻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체육회, 올해 첫 이사회 개최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가 올해 첫 이사회를 열어 체육발전을 논의했다.

이에 따르면 8일 전주에 한 호텔에서 이사회를 개최해 △정관 개정(안) △각종 규정 제정(안) △2023 도민체육대회 개최지 선정의 건 △임시총회 개최 및 정기총회 개최의 심의건 등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여파로 심의·의결

사항이 있을 경우 비대면 서면 결의로 대신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다.

특히 이날 이사회에서는 심의·의결사항을 비롯해 임원변동 사항 및 전국동계체육대회 체육정책간담회, 전국소년체육대회 등 올 상반기 주요 추진업무 등에 보고가 이어졌다. /장은성 기자

관광공사, 남원시에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6개 지자체에 각 70억 투입

남원·충북 청주·강원 양양·경북 경주·경남 하동·울산에 스마트관광도시가 조성된다.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산업 디지털 전환과 맞춤형 스마트관광 서비스를 위해 오는 9일부터 6개 지방자치단체와 순차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컨소시엄 참여 민간기업과 내년 3월까지 각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스

마트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남원 공천루 전통문화체험지구, 청주 문화제조장 등 원도심과 주변, 양양 서퍼비치로드, 경주 힐리단길 일원, 하동 화계장터와 최첨단택·배센터, 울산 장생포 고대문화지구 등이 사업지로 선정됐다.

조성 사업에는 각 지자체별 70억원(국비 35억원·지방비 35억원), 총 4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뉴스스

제16회 전국 장애인 가요제

안녕합니다.

제42회 장애인의 날 기념 제16회 전국 장애인가요제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참여 확대와 장애인 재능개발로 삶의 의욕을 돋이기 위한 목적으로 주최하오니 많은 사랑과 홍보를 기원합니다.



대회본부장 김인국



대회제천위원장 손명엽



대회추진위원장 김연철



대회홍보위원장 이수정(가수)

1. 일시 : 2022년 6월 12일(일) 오후 2시 30분
2. 장소 : 전주 풍남문화광장
3. 주최 : 전북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전주매일신문사
4. 주관 : 전라북도장애인문화예술봉사단, 전주시 장애인복지협회
5. 후원 : 전라북도, 전주시, 서광수출표장(주), (유)유복이엔지, 삼대농장계성건설(주), 수정과한울타리협회, 한국문화예술진흥회 전북본부, 한국장애인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 참가자격 : ① 전국의 16세 이상 등록장애인 ② 타 대회 대상, 최우수상 하지 않은 자

전화 : 063-286-6676 · 287-6678, FAX: 287-6676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